복지는 오직 한 쌍이다

(고전10:1~13)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지는 오직 한 쌍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지와는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시는 복지는 언제나 한 쌍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유는 대부분이 이것일 거예요.
복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한 쌍이어야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신발,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한 짝이 사라져 버리면 신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 알, 비싼 렌즈를 끼어도, 렌즈 하나가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 안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콘택트렌즈도 양말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시는 귀걸이, 이것도 양쪽 귀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한 짝이 없어져 버리면 곤란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4개를 다 동시에 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 2개는 같이 짝으로 쌍으로 갈아야 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도 그렇지요?
또 노아 홍수 때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쌍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녀도 한 쌍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지, 이것도 한 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복지가 있고 제2복지가 있어요.
제1복지는 광야복지입니다. 그리고 제2복지는 가나안복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휘를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복지는 오직 한 쌍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야복지와 가나안복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1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제1복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서 제1복지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복지,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복지로써 주어지는 일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2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제1복지 광야복지를 믿음을 통해 이루게 되면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복지를 이룬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제2복지를 주실 것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제2복지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삶의 조건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절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쌍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제1복지 광야복지만 신경 쓰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지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평강 가운데서 안전한 장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복지를 믿음 안에서 이루기만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조건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좀 안정된 조건에 내 삶을 올려놓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복지를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게 되는 일은, 그냥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 돈 많이 벌고, 건강을 유지하고, 높아지려 하고, 많이 벌려…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노력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복지로 살아지는 겁니다, 제1복지를 이루면.
그런데 제1복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제2복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본문 중 마지막 9장 27절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하반절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에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예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와 양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예로 들면서, 9장 27절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일이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이라'는 이야기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무슨 금욕적 행위나 수련과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결과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몸에 예속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라도 몸을 쳐서 복종 시키는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금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고행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몸에 대해서 죽는 건데,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몸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나의 소망들, 소원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얘기입니다, 막 몸을 쳐서 고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거지요.

그리고 하반절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경우.
오늘 지금 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제1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예로 드는 것은, 가나안 복지로 향하는 노정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요.
자! 버림을 당한다는 것, 사도바울처럼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경우에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9장의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 흐름의 맥락상 구원을 받은 것은 확정적인데(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더 큰 상을 받느냐 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근데 이 말씀이 발전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한 단계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멸망으로 처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한번 주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면, 혹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빠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

어나기도 하고, 질척거리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힘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성도의 견인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과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교인으로써 살던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교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 예표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바른 믿음.
믿음을 가지면 성도의 견인이 적용이 되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시대 때 지금 고린도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사건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신 물을 마신 것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신 것,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교회에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뜻하는 성만찬에 참여

하는 것의 예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준하는 출애굽과 구름기둥 인도를 경험한 이스라엘, 성만찬에 준하는 음료와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 속해 있는 도상이었습니다.
이 광야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바로 제1복지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1복지를 이루면 제2복지인 가나안의 이 땅 위의 현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니까, 문제는 제1복지를 이루어라.
그 제1복지를 이루는 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1복지, 광야복지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결핍된 땅입니다.
물 없습니다, 음식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집도 조달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러한 불모의 땅에서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믿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바른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럼 대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결핍된 불모의 땅에서조차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전능하심은, 천지를 만드시는 데만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확정되나 하면, 광야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내게 아~무 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조건하에서도, 돈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옷도 없고, 명품도 없고, 학위도 없고, 좋은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 놓은 그 좋다는 모든 가치가 다~ 없어도 얼마든지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완전히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완전히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음행이라는 게, 바알브올.
모압 땅에 갔을 때 바알브올을 섬겼는데, 바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알브올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범한 것은 단순한 음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가 본문에서 계속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부추나 마늘, 파를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의 의미가 뭘까요?
맛있는 고기가 없으면 불평이 나온다는 뜻은 고기를 믿는 겁니다, 고기의 힘을.
비록 지속되지는 못할지라도 일정 순간이나마 고기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없고, 물질이 빈곤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돈이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선민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너희가 출애굽에서 내 능력을 봤다. 세계 제1, 초강국인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다.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개 되었으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결핍된 이 땅에서도 나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해라.
이걸 요구 하셨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너희가 광야에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를 온전하게 기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 견디고 인내했으면, 제2가나안 복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2가나안 복지로 빨리 들어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현실을 빨리 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자꾸, 돈 좀 벌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높은 스펙을 쌓겠다는 겁니다, 많이 모으겠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어떻게 잘 됐으면…
자꾸 이 세상의 제2가나안 복지를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1 가나안 복지를, 광야복지를 먼저 이루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걱정이 생길 때,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돈이 있어야만 된다는 염려가 생겼지마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들어온 나의 습성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이 상태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조금도 돈을 더 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만족하고 기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복지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건 그 소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차가 너무 갖고 싶다 그럴 때, '아니야! 이 차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바알브올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차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차가 없어도 그것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라

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견디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짐으로써, 돈이 없어도 모~든 조건들이 결핍이 되도, 온~전히 만족하는 광야의 복지를 이루세요.
광야의 복지를 이루면,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젖과 꿀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지를 살 수 있도록 제2복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벌까,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오래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애 쓰지 마시고 오직 광야복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가치가 내게 모두 결핍 되어도,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완전히 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이 느껴지고, 그러므로 소원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소원 안 이루어져도 돼, 이 결핍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는, 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광야의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광야의 복지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는 오직 한 쌍으로만 주어집니다.
한 쌍의 복지는, 제1복지인 광야복지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광야복지를 이루는 믿음만이 참 믿음으로서, 교인과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1 복지인 광야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바른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